■ 민족문화연구 제91호(2021.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9-47.
http://doi.org/10.17948/kcs.2021..91.9

【특집: 사전 편찬의 역사성과 특수성】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사전화 과정과 사전학적 의의*

최경봉(崔炅鳳)**

목 차

1. 머리말
2. 『원고본』의 조성과 수정 맥락
3. 원고의 수정 양상과 『원고본』의 사전학적 의의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최초 국어대사전의 원고, 즉 ‘조선말 큰 사전 원고’를 분석하고, 이 원고의 사전학적 의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조성과 수정 맥락을 살펴보았다. 둘째, 이 원고의 수정 과정을 추적하여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 나타난 변화 양상을 정리하였다. 셋째, ‘조선말 큰 사전 원고’가 사전으로 출간되기 전까지 사전편찬 방법론에서 어떤 모색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수정이 단순히 원고를 다듬고 오류를 정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전의 구조를 바꾸고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차원의 수정이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7-KFR-1230008).
**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국어사전 편찬사, 어문규범, 조선어학회, 『조선말 큰 사전』, 한글학회.

1. 머리말

본고에서는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이하 『원고본』)[1]의 조성과 수정 맥락, 그리고 원고 조성에서 사전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정 양상 등을 살펴보면서, 『원고본』의 사전학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국어사전이 간행됨과 동시에 그 원고의 내용상 가치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사전 원고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사전이 내용상 완성되었음을 뜻하는 만큼, 원고 내용은 일부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출간된 사전으로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고가 완성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사전이 출간되었거나, 원고의 완성과 출간 사이에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동이 발생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 사이의 사회문화적 변동이 언어의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의 변화를 촉발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사전편찬의 관점과 환경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사전 원고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수정 양상은 별도의 사전학적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본고의 탐구 대상인 『원고본』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 편찬을 시작하여 1957년 출간 완료된 『큰 사전』의 원고[2]로, 1942년에 조성된 이후 사전의 출간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원고 조성 후 출간이 완료되기까지 15년 동안 한국 사회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원고본』은 사전학적 탐구 대상으로서의 조건을 완벽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1) 현재 남아 있는 『원고본』 중 1942년 조성된 원고로 출판까지의 수정 흔적이 그대로 담긴 것은 한글학회 소장 8권(붇다-빟다, 시-싶, 외-우측통행, 절용-제밑, 주청사-찌그러뜨리다, ㅌ-팀파니, ㅍ-핑핑이, 핸드오르간-현훈증)과 독립기념관 소장 5권(ㅈ-잡제, 찌그러지다-진도바리, 척사윤음-청찰, 여-옇다, ㅎ-핸드백) 그리고 고 김민수 교수 소장 1권(‘범례’ 22장과 ‘ㄱ 일부’ 29장)으로, 400자 원고지 3,500여 장의 분량이다. 이 『원고본』은 2020년 10월 보물로 지정되었다.

2) 본고에서 『원고본』을 ‘큰 사전 원고’가 아닌 ‘조선말 큰 사전 원고’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원고본』이 조성된 후 출판한 사전의 첫째 권과 둘째 권이 『조선말 큰 사전』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원고본』에 대한 사전학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원고본』에 대한 기존 논의로는 『원고본』의 21개 표제어에 대한 기술 내용을 『조선말 큰 사전』(1947)의 기술 내용과 대조하여 제시한 논의[3], 『원고본』의 수정 맥락을 간략하게 설명한 논의[4], 『조선말 큰 사전』의 표제어 변화를 어문민족주의와 관련지어 설명한 논의[5]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은 『원고본』을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원고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원고본』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없었던 일차적인 이유는 연구자가 『원고본』에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원고본』의 자료적 가치를 사전학적 관점에서보다는 일제강점기 민족문화운동의 성과물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만 찾았던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원고본』에 대한 사전학적 평가를 통해 국어사전 편찬의 방법론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려는 본고의 시도는 국어사전 편찬사의 서술을 정교화한다는 의미가 있다.[6]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2장에서는 『원고본』의 조성과 수정 맥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원고 조성의 시기와 과정 그리고 원고 수정의 계기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3장에서는 원고의 수정 양상과 그것의 사전학적 의의를 거시구조적 측면과 미시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2. 『원고본』의 조성과 수정 맥락

이 장에서는 『원고본』이 조성되고 수정된 맥락을 살펴보면서, 출판본이 1942년 조성한 『원고본』과 사뭇 다른 체제와 내용으로 출간된 맥락을 설명할 것이다.

---

3) 김민수, 『국어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1973, 82-85면.
4) 최경봉, 『근대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2016, 351-355면; 『우리말의 탄생』(2판), 책과함께, 2019, 305-307면.
5) 최경봉, 「국어사전과 어문민족주의」, 『한국사전학』 30, 한국사전학회, 2017b, 37-66면.
6) 현재 국어사전의 구조가 정립되는 과정이 『큰 사전』의 초고에서 출간본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원고본』의 조성 맥락

최초로 『원고본』의 실체에 주목한 김민수[7]는 『원고본』과 출간본을 대조하면서, 『원고본』을 "『朝鮮語大辭典』 초고(1942)"로, 출간본을 "『조선말 큰 사전』(1947)"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 첫째는 『큰 사전』이 애초에 『朝鮮語大辭典』이란 이름으로 출간될 예정[8]이었고 그 원고가 1942년에 완성되었음을 말해주고, 둘째는 1957년 『큰 사전』이란 이름으로 완간되기 전인 1947년에 『조선말 큰 사전』이란 이름으로 첫째 권이 출간되었음을 말해준다.[9]

이처럼 사전 제목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 1942년에 조성된 『원고본』에 대한 수정 작업이 1957년 완간 시점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출간과 관련지어 『원고본』의 조성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편찬 작업이 시작되어 1942년에 『원고본』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정뿐만 아니라, 『원고본』 완성 이후부터 1957년 완간 시까지 수정이 이루어진 과정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기존 사전편찬사의 서술 내용을 통해 보면,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사전편찬사업이 시작되었고, 기초적인 사전편찬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1939년 말경부터 사전 출판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간 것으로 보인다.[10] 한글학회에 따르면, 이즈음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검열용 원고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여 1940년 3월에 원고 수정을 조건으로 검열을 통과하였고, 초벌 풀이와 원고의 체계 잡기가 완성 단계에 이른 1942년 여름에 200여 면의 조판 교정이 진행되었다.[11]

이러한 과정을 보면 『원고본』은 총독부 검열용으로 작성한 원고와 1940

---

7) 김민수, 앞의 책, 82-85면.
8) 조선어학회 기관지인 『한글』 10-1, 1942.1에는 『朝鮮語大辭典』을 3권 혹은 4권 규모로 출간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9) 1950년 출간된 셋째 권부터 제목이 『큰 사전』으로 바뀐다.
10) 조선어학회에서는 기관지(『한글』 7-4, 1939.4.)를 통해 1939년 이내로 사전편찬을 끝낼 것임을 예고했다.
11) 한글학회,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2009, 536면.

년 검열 통과 이후부터 1942년까지 작성한 원고가 합쳐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본』의 조성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판정 근거가 되는 표기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고본』 범례에는 "순 조선말이나 한문말의 철자는 소화 8년 10월 29일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 제정 발표한 '한글마춤법통일안(朝鮮語綴字法統一案)'의 소화 12년 수정본(修正本)에 의하였음."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는 1937년에 수정한 맞춤법에 맞춰 원고가 작성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본』에서 '사이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양상을 보면, 『원고본』은 1937년의 수정안이 아닌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0.6.)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12]

이처럼 '범례'의 설명과 '본문'의 기술이 다른 것은 '범례'와 '본문'의 집필 시기가 달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범례'에서 1937년 맞춤법을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범례'가 검열 원고에 첨부되었음을 말해주고, '본문'이 1940년 6월에 발표된 맞춤법 개정안을 따른 것은 '본문'이 검열 통과 이후 작성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맞춤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편찬위원과의 협의가 있었음[13]을 감안하면, 본문 원고의 작성은 검열 통과 직후인 1940년 4월부터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난 1942년 10월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원고본』의 상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표제어만 기록되어 있고 풀이가 빈칸으로 남겨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빈칸으로 남겨진 표제어가 몇 개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한글학회에서는 해방 후 되찾은 『원고본』은 16만여 어휘가 풀이되어 있었고 5천여 어휘는 뜻풀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다.[14]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원고본』의 완성은

12) 1940년 개정안의 '사이ㅅ' 규정에서는 1933년 통일안의 "뒷간, 손등, 나뭇배 (…)"를 "뒤ㅅ간, 손ㅅ등, 나무ㅅ배 (…)"로 바꿔 쓰도록 했는데, 『원고본』의 수정 전 표기는 이 개정안을 따르고 있다.

13)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原案 一部 改定에 對하여"에는 경과 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를 보면 사전편찬위원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1940년 4월 25일에 개정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 한글학회, 앞의 책, 536면.

해방 후 수정 작업과 병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왜 5,000여 어휘의 풀이를 완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묶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본』에서 1942년 당시 미완료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표제어를 추출하고 이 표제어들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본』은 1942년 이후의 수정 및 추가 사항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애초 미완료 표제어를 온전히 추출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풀이 부분이 빈칸이고 표제어에 삭제 표시가 있는 경우', '풀이를 기록한 글씨가 표제어를 기록한 글씨와 다른 색이고, 풀이 뒤에 여백이 많은 경우' 등은 애초 미완료 표제어로 추정할 수 있다.[15] 이렇게 추출한 미완료 표제어는 아래처럼 네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A) 1942년 당시 집필이 미완료된 표제어
ㄱ. 삭제한 경우: 까댁, 불가지론적실재론(不可知論的實在論), 불독, 뷔부라토, 뷔퐁, 뷔흐너르, 뷰커레스트, 브가히아, 브라운, 브랜디, 브럭크, 브레슬라우, 브레일, 브렌타노, 브로컨, 브로킹, 브리지, 블랙, 블랭컷, 블랭크, 뷰캐넌, 비지팅팀, 비현(枇峴), 외증(外症), 외환근(外環筋), 자성대(子城臺), 자수감등(自首減等), 자수경감(自首輕減), 자열(刺熱), 자재접수(自在接手), 직박구리, 진남포(鎭南浦) (…)
ㄴ. 풀이한 경우: 가구(家口), 가나오나, 가납(加納), 가냘프다, 가년(加年), 가념(可念), 가도(加賭), 불경스럽다(不敬-), 시먹다, 심의겸(沈義謙), 심청전(沈淸傳), 싱경이, 외손지다, 외연기관(外燃機關), 외투강(外套腔), 요각나무, 비즈니스, 자유국(自由國), 작용양자(作用量子), 작용점(作用點), 잠정조약(暫定條約), -잡-, 점근선(漸近線), 타구(打球) (…)
ㄷ. 비표준어로 처리한 경우: 가는비, 까땍수, 진경이 (…)
ㄹ. 표제어의 형태를 바꿔 풀이: 가납사니(→가납사니같다)

위의 예에서 특징적인 것은 (Aㄱ)에 제시된 예의 대부분이 인명과 지명을 포함한 전문어 및 외래어이고, (Aㄴ)에 제시된 표제어 중에는 일반어도 있지만 인명과 지명을 포함한 전문어 및 외래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15) 'ㄱ'부분 원고 29장은 빈칸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 미완료 표제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완료 표제어에는 인명과 지명을 포함한 전문용어 및 외래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표제어들 중 많은 표제어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전편찬을 마무리할 시점에 인명과 지명을 포함한 전문용어 및 외래어의 수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수집된 어휘들을 제대로 평정(評定)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 포함했음을 말해준다.

(Aㄷ, ㄹ)의 표제어들은 비표준어로 처리되거나 표제어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결과적으로 뜻풀이를 하지 않게 된 것들이다.[16]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미완료 표제어는 드물지만, 이 사례들을 통해서도, 『원고본』의 수정 과정에서 미완료 표제어에 대한 어휘 평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원고본』의 수정 맥락

『원고본』의 수정은 주로 해방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방 후 사전 기술의 원칙과 관련한 수정 중 두드러진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한글 맞춤법의 개정에 따른 수정이고, 둘째는 고유어와 한글 쓰기를 확장한 데 따른 문법 용어와 전문어 분류명의 변경이다.

그런데 『원고본』의 수정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맞춤법과 문법 용어가 변경되기 전에도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 집필된 원고의 여백에 표제어를 추가하고 주해를 한 경우인데, 이 내용들이 본격적인 수정 작업 전에 추가된 것임은 한자로 된 문법 용어와 1940년의 개정 맞춤법에 따른 표기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전의 기술 원칙이 바뀐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의 수정 양상을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

사전의 기술 원칙이 바뀌기 전의 수정은 1942년 『원고본』이 일차 완성된 직후 이루어졌거나, 해방 후부터 1946년 맞춤법 개정 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전의 기술 원칙이 바뀐 후에 이루어진 수정은 1946년 개정 맞춤법에 따라 표기를 바꾼 것[17]과 한자로 표기된 한자어 문법용어 및

16) (Aㄴ)의 ‘요각나무’처럼 풀이를 했다가 이후 대표 표제어를 다른 표제어로 바꾼 경우도 있다.
17) 1946년의 맞춤법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이시옷 표기다. 사이시옷 규정의 개정은 1940년 개정안에서 “뒤ㅅ간, 고ㅅ집, 나무ㅅ배 (…)”로 바꿨던 것을 1933년의 통일안으로 회귀해

전문분야명을 고유어로 바꾸거나 한글로 표기하는 것[18]이다.

이때 주목할 것은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기술 원칙을 변경하는 것과 더불어 내용상의 수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3장에서 본격 논의할 것이지만 내용상 수정의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표제어의 첨삭과 풀이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둘째,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사회적 움직임과 '우리말 도로찾기'와 같은 언어정화 운동의 맥락에서 표제어의 첨삭과 풀이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셋째, 사회 변화와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말들이 추가되었고, 일부 표제어의 경우에는 사회 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를 반영하는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정 작업은 결국 원고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사전 기술의 체계화 등을 염두에 둔 수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1942년의 『원고본』과는 다른 체제와 내용의 출간본이 나오게 되었다. 원고의 수정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원고본』의 사전학적 의의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이루질 것이다.

3. 원고의 수정 양상과 『원고본』의 사전학적 의의

1) 거시구조적 측면

거시구조적 측면에서의 수정 양상은 표제어의 추가와 삭제, 표제어 배열 방식의 변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표제어의 추가와 삭제

표제어의 수록 양상은 사전의 지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뒷간, 곳집, 나뭇배"와 같이 쓰는 것이다.

18) 문법용어의 변경은 '名(명사), 代(대명사), 數(수사), 形(형용사), 補形(보조형용사) (…)' 등처럼 한자로 표기된 한자어 문법용어를 '이, 대, 셈, 어, 돕ㆍ어 (…)' 등의 고유어로 바꾼 것이다. 전문어 분류명의 변경은 한자로 쓰인 '哲, 倫, 論, 心, 法, 經 (…)' 등을 '철, 윤, 논, 심, 법, 경 (…)' 등의 한글 표기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원고본』의 사전학적 의의를 밝히는 논의에서는 표제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며 출판본에 이르는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표제어 변동의 맥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원고본』에서 표제어가 추가된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표지는 모든 표제어에 딸린 ‘문법 용어’의 표기 방식이다. 문법 용어를 변경하기 이전에 추가된 표제어는 해방 이후 수정 작업을 본격화하기 이전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19]에서, 문법 용어 변경을 전후하여 추가 표제어의 특징을 비교해 그 변동 맥락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 문법 용어 변경 이전 추가된 표제어
ㄱ. 비표준어: 까끼=갈퀴, 뿔쥐=박쥐, 삐기=삘기, 삐들기=비둘기, 비억=부엌, 씨래=쓸개, 외조할아버지=외할아버지, 짜깨칼=접칼, 짜긔다=짜개다, 짬꼬디=잠꼬대, 짬잘래=잠자리, 점바치=점쟁이 (…)
ㄴ. 전문어: 불부(佛部), 불사초(不死草), 불신자(不信者), 불력(佛力), 불완전중립국(不完全中立國), 붉은가슴논종다리, 자동(紫銅), 자주감등(自主減等), 자주경감(自主輕減), 잠신(蠶神), 진구류(眞口類) (…)
ㄷ. 일반어: 불받다, 불나다, 불속, 불장난, 불피우다, 붕어사탕, 빈말, 빈손, 가동거리다, 짬질, 붕숭하다(봉송하다(鬆鬆-)의 변한 말), 시대지(時代遲), 십삼시(十三時), 십구시(十九時), 외코, 직역(職域), 진권(進勸)[20] (…)

위의 예는 추가 표제어의 유형을 ‘비표준어, 전문어, 일반어’로 나누어 일부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Bㄱ)에서처럼 비표준어를 표제어로 추가한 것은 규범사전으로서의 기능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방언을 비롯한 다양한 비표준어를 광범위하게 수록하는 계기가 되었다. (Bㄴ)에서처럼 전문어는 대부분 한자어가 추가되었는데, ‘불사초, 잠신’ 등처럼 전통적인 용어, ‘불신자, 불완전중립국, 자주감등, 자주경감’ 등처럼 새로 등장한 용어가 추가되었다.[21]

19) 『원고본』의 수정 상태를 보면, 문법 용어를 한자어에서 고유어로 변경하는 수정은 1946년 개정 맞춤법을 적용하는 수정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 『원고본』에는 한자가 빠져 있고 수정 과정에서도 한자를 추가하지는 않았음.
21) 법률 용어로 새로 추가한 ‘자주감등, 자주경감’은 (Aㄱ)에서 제시한 1942년 미완료 표제어 중

이는 카드 작업이 완료된 뒤에도 어휘의 발굴이 지속되었음을 말해준다. (B ㄷ)의 일반어에서는 한자어의 경우 '시대지, 진권'처럼 사용 빈도가 낮은 말이나 '붕숭하다'처럼 원말에서 변한 말 외에도 '십구시, 십삼시' 등과 같은 말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는 어휘를 최대한 수집하여 수록하는 표제어 수록 원칙을 보여준다.[22] 이런 차원에서 '가동거리다, 짬질' 등과 같은 파생어와 '불받다, 불나다, 불피우다, 빈손' 등과 같은 통사적 합성어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 문법 용어 변경 이후의 추가 표제어

ㄱ. 비표준어: 불기=상치, 불그스레하다=불그스름하다, 불손=부손, 뽈나무=개옻나무, 붑달다=붚달다, 불키다=부르트다, 붙닐다=부닐다, 빈=핀(pin), 시로프=시러프(syrup), 심청굿다=심술궂다, 여사=오죽, 외여장이=왼손잡이, 외이다=외다, 자무락질=무자맥질, 자보록하다=자옥하다, 짤르다=짧다, 진눈=진눈깨비, 찐덕찐덕=찐득찐득, 파딱=파뜩 (…)

ㄴ. 전문어: **①동・식물 관련:** 비어과(飛魚科), 비전수모과(備前水母科), 자벌레나비과, 자란(紫蘭), 자옥란(紫玉蘭), 자옥련(紫玉蓮), 자주강아지풀(紫朱-), 잠저(蠶蛆), 잠항(蠶蟓), 진귀(秦龜) (…) **②인문・문화 관련:** 불법계(佛法界), 외어물전(外魚物廛), 자기보존(自己保存), 비교언어학(比較言語學), 자동식자기(自動植字機), 탑골공원(塔-公園) (…) **③법・정치・경제 관련:** 비팽창주의(非膨脹主義), 외교단절(外交斷絶), 외교담판(外交談判), 외교사절(外交使節), 외국공채(外國公債), 외국법(外國法), 외환죄(外換罪), 자기보험(自己保險) (…)

ㄷ. 일반어: **①한자어:** 불경사소년(不經事少年), 불공드리다(佛供-), 불순(不純)하다, 불연(怫然)하다, 불협화음(不協和音), 붕하다(崩-), 비서실(祕書室), 비망록(備忘錄), 비호같다(飛虎-), 시비지심(是非之心), 심뇌(心惱), 십일조(十一租), 외곽(外廓), 외국산(外國産), 외국제(外國製), 외숙(外宿), 외우(畏友), 외종사촌(外從四寸), 외종제(外從弟), 외종형(外從兄), 외첨내소(外諂內疎), 자연요양소(自然療養所), 자격지심(自激之心), 자매기관(姉妹機關), 점방(店房), 지도자(指導者), 직심스럽다(直心-), 타성바지(他姓-), 타인소시에(他人所視-), 탈복(脫服), 파벌(派閥), 판매인(販賣人) (…) **②외래어:** 블리크(Blik), 비프스

최종 삭제된 '자수감등, 자수경감'을 대체한 용어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주경감'을 '자수경감'의 전 용어로 정의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22) '시대지'와 '십삼시'부터 '십구시'까지 시간을 나타내는 표제어는 이후 원고 수정 과정에서 삭제된다.

> 테익(Beef steak), 시가(Cigar), 잠바(jumper), 타임워취(Time-watch) (…) **③고유어:** 불고기, 불꽃같다, 불그름하다, 불당그래, 불뚝, 불뚝불뚝, 불쑥, 붓방아질, 뽕뽕, 뿌루퉁하다, 붙움키다, 붐하다, 비듬히, 비리척지근하다, -시거늘, -시건마는, 시금칫국, 시들병(-病), 시름없다, 씨무룩하다, 씨부렁거리다, 시장, 싯누렇다, 싱건지, 여-, 여겨들-, 여덟해, 여부없다, 외톨마늘. 외톨밤, 여름낳이, 자그시, 짜그르르, 짜근거리다, 짜근짜근, 잠재우다, 지며리, 타끈, 타끈스럽다 (…)

(B)에 이어 (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명확하다. 존재하는 모든 어휘를 최대한 발굴하고 수록하여 국어사용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전을 만들자는 목표이다.

(Cㄱ)에서처럼 비표준어를 추가하는 것은 (B)에서 밝힌 대로 규범사전이라는 사전의 성격을 의식한 것이지만, 당시 우리말 어휘의 변이 형태를 최대한 수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우리말 어휘를 총망라한 대사전의 편찬이라는 목표와 연결되는 것이다.

(Cㄴ)에 제시한 전문어 중에는 '불법계, 외어물전'처럼 기존 어휘의 발굴을 통해 추가된 전문어도 있지만, '외환죄, 자동식자기, 자기보험'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문어의 추가 양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외교단절, 외교담판, 외교사절 (…)' 등처럼 특정 전문 분야의 합성어가 광범위하게 추가되는 것은 시대적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문법 용어 변경 이전부터 동식물 관련 전문어처럼 시대적 변화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분야의 전문어가 두드러지게 추가된 것은 해방 이후 관련 전문어의 집필 역량이 갖춰진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Cㄷ)에서 볼 수 있는 일반어 표제어의 추가 경향은 네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새로 등장한 어휘를 수집하고 빠진 어휘를 확인하여 추가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한자어의 경우 '비서실, 비방록, 십일조, 외국제, 자연요양소, 점방, 지도자, 탈복, 판매인' 등처럼 새롭게 쓰이게 된 한자어, '불경사소년, 시비지심, 심뇌, 외첨내소, 자격지심, 타인소시에' 등처럼 관습

화된 한문구 등을 추가하였다. 고유어의 경우는 '불고기'는 새로 만들어진 말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고유어는 원고 작성 시 빠진 어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성·의태어를 포함하여 음상(音相)이 다른 동작 및 상태 묘사어를 폭넓게 추가한 것[23]이나 준말과 원말의 관계를 드러내어 추가한 것[24]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표제어의 추가가 단순히 양적 확장이 아니라 미세한 의미상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준다.

둘째, 표제어의 추가가 표제어 수록의 체계성을 갖추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름없다'나 '불연하다'는 '시름없이'와 '불연히'가 수록된 상태에서의 체계성을, '심청궂다'는 '심청'이 '심술(心術)'의 비표준어로 수록된 상태에서 '심술궂다'와의 대응을 고려해 추가한 것이다. '불쑥'과 '시장'은 '불쑥하다'와 '시장하다'가 수록된 상태에서 현실적 쓰임을 보이는 어근을 제시하기 위해, '싯누렇다'는 '싯-'을 접두사로 등재한 상태에서 관련 파생어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추가한 것이다. '자매기관'과 '시금칫국'을 추가한 것은 '자매신문(姉妹新聞), 자매함(姉妹艦)'과 '시금치죽'이 수록된 상태에서 관련 합성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합성어의 선정 기준을 넓혀 표제어를 확대하였다. 수정 전 『원고본』에 '외종'만 등재되었지만, 수정 과정에서 '외종사촌, 외종제, 외종형' 등을 추가하는 것, '불꽃같다, 불공드리다, 잠재우다' 등을 합성어로 추가한 것이 그런 예이다. 이는 (Bㄷ)에서 '불받다, 불나다, 불피우다'를 추가한 것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합성어가 과도하게 추가되면서 '여덟해'의 경우처럼 출판본에서 최종 삭제되는 사례도 나타나게 된다.[25]

---

23) '시무룩하다, 시부렁거리다, 자그르르, 자근거리다, 자근자근' 등과 다른 음상의 '씨무룩하다, 씨부렁거리다, 짜그르르, 짜근거리다, '짜근짜근' 등을 추가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24) '비스듬히, 희붐하다'의 준말로 '비듬히, 붐하다'를 추가하고, '부둥키다'의 원말로 '붙움키다'를 추가한 것이 그런 예이다.

25) '여덟해'가 삭제된 반면 '여덟달'은 유지되는데, 이는 이러한 합성어가 어떻게 의미화되느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덟달'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말인 '바사기'와 같은 뜻의 단어로 쓰인다.

넷째, 사용자의 편이를 고려하여 문법적으로 특이한 표제어를 추가하였다. '여-, 여겨들-' 등은 각각 '열다'의 변칙어간과 '여겨듣다'의 변칙어간으로 풀이된 표제어인데, 변칙어간을 특별히 표제어로 등재한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26] '-시거늘, -시건마는' 등처럼 둘 이상의 어미가 관습적으로 결합해 쓰이는 어미를 표제어로 추가한 것도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 표제어의 삭제

ㄱ. 비표준어: 불놋다=불놓다, 불살르다=불사르다, 불붓다=불붙다, 불밧다=불받다, 불틔=불티, 불질르다=불지르다, 뷹읏뷹읏=뿔긋뿔긋, 붓그럽다=부끄럽다, 붑흐다=부프다, 붑희=부피, 븬속, 븬손, 빈여=비녀, 여름지이=농사, 여름짓다=농사하다, 자냑때=저녁때, 직숙읏하다=직수긋하다, 타스(Dozen)=다스

ㄴ. 전문어: **①동식물 관련:** 자단삼(紫團蔘), 자성화(雌性花), **②인문・문화 관련:** 빈송(濱松), 불령기네아(佛領 guinea), 여관(女官), 비두니아, 잠사전문학교(蠶絲專門學校), 지상파(至上派), 직접법(直接法), 탁남(濁南) (…) **③법・정치・경제 관련:** 불안정좌(不安定坐), 불경죄(不敬罪), 불경기(不景氣), 불가분채권(不可分債券), 불가분채무(不可分債務), 불가분급부(不可分給付), 불가분물(不可分物), 비방률(誹謗律), 비상대권(非常大權), 비상보안경찰(非常保安警察), 비상상고(非常上告), 비상특별세(非常特別稅), 비정명론(非定命論), 시보(試補), 지도문구(指圖文句), 지도식소절수(指圖式小切手), 지도인(指圖人), 지도증권(指圖證券) (…)

ㄷ. 일반어: **①한자어:** 불경지설(不敬之說), 불귀(不歸), 불매(不買), 불사의(不思議), 불로하다(不老-), 불탈주인석(不奪主人席), 붕(崩), 빙과자(氷菓子), 비도(非徒), 비야사(飛也似), 비약적(飛躍的), 십이분(十二分), 여복(旅服), 외뢰(磈礧), 자반청어(佐飯靑魚), 자손선선(子孫先先), 자연적생활(自然的生活), 자자(藉藉), 점두도(店頭渡), 지기일 미지기일(知其一 未知其一), 지진두부(-豆腐), 지차불선(只此不宣), 직작(織作), 직접관계(直接關係), 진가(眞家), 진기력(盡其力), 진기성(盡其誠), 타합(打合), 탈선적(脫線的), 탈속반(脫粟飯), 탑연(嗒然), 탑용(闖茸) **②외래어:** 가꾸야(ガクヤ=樂屋), 가끼도매(カキトメ=書留), 가다꼬이(カタコイ=片戀), 브라보(Bravo), 브라쉬(Brush), 뷰(View), 뷰로(Bureau), 비제(Bizet), 비프(Beef), 빌(Bill), 빌라도(Pilate), 빌려드(Billiard), 타

26) 이러한 변칙어간은 수정 전 『원고본』에도 일부 수록했지만, "비트다[他, ㄹ變]=비틀다"처럼 이것이 어간 표제어임을 분명히 나타내지는 않았고, 일부 변칙어간만을 수록하여 체계적이지도 않았다.

> 이(Tie), 파더(Father), 파스트(Past) (…) **③고유어:** 까끼춤, 까끼겹저고리, 불쪼이다, 비빈밥, 외김치, 외목하다, 잠주정(-酒-), 잡개, 잡수시다, 찍소리 못하다, 찍소리없다, 탁근스럽다, -브다 (…)

표제어 삭제는 앞서 (B)와 (C)를 통해 살펴본 표제어 추가 양상과 대비되는데, 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 표제어 선정 원칙이 조정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Dㄱ)에서처럼 삭제된 비표준어와 앞서 살펴본 추가된 비표준어의 차이를 보면, 삭제된 예는 '불놋다'처럼 표기상의 오류를 보여주거나 '자냑때'처럼 구성 단어 '자냑'이 이미 비표준어로 수록된 경우다. (Dㄷ③)에서 '탁근스럽다'를 삭제한 것도 '타끈스럽다'(Cㄷ③)로 표기를 교체한 데 따른 처리로 볼 수 있다. '여름지이, 여름짓다'의 경우는 수정 과정에서 삭제하였다가 출판본에서 비표준어로 수록하였다.[27] 이런 점을 볼 때, 비표준어의 삭제가 다양한 방언형을 누락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Dㄴ)을 통해서는 법・정치・경제 관련 전문어의 많은 수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의 전문어들이 해방 후 쓰이지 않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전문어들은 '빈송, 비두니아, 불령기네아, 잠사전문학교' 등처럼 전문어로서 등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비정명론, 자단삼, 여관, 탁남, 지상파, 직접법' 등처럼 전문분야에서 다른 용어로 대체되어 쓰이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Dㄷ)을 통해서는 일반어로 수록한 표제어의 삭제 이유를 표제어의 사용 빈도 반영, 사용 경향의 반영, 표제어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판정, 단어 성립에 대한 판정 등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표제어의 사용 빈도를 반영하였다는 것은 '비야사, 여복, 점두도, 직작, 타합, 탈속반, 탑용' 등처럼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제어를 삭제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표제어 사용 경향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비빈밥, 빙과자, 외김치' 등

27) '여름지이, 여름짓다'는 『조선어사전』(1938)에 수록된 어휘이다. 이는 수정 과정 중 기존 사전과 대조하면서 표제어 확정 여부를 결정했음을 말해준다.

을 삭제하고 '비빔밥, 빙과, 오이김치'를 남긴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비빈밥'과 '비빔밥'을 구분하여 풀이[28]하였다가 '비빈밥'을 삭제한 것은 그러한 구분이 사라진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목'을 '외목장사'의 준말로 처리하면서도 '외목하다'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외목장사하다'만 쓰이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표제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는 것은 '잡수시다'처럼 존대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을 삭제하고[29], 외래어 수록의 기준을 강화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추가된 외래어에 비해 삭제된 외래어가 많은데, 이는 앞서 밝혔듯 원고 작성 시 평정(評定) 기준 없이 수집 가능한 외래어를 최대한 수록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외래어의 수용 기준을 강화했는데, (C)에서 '비프스테익'을 추가하면서 위의 (D)에서처럼 '비프'를 삭제한 데에서 외래어의 수용 기준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단어 성립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음은 (B)와 (C)에서처럼 파생어나 합성어를 추가하며 표제어를 확대하는 한편으로, 이를 삭제하여 조정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약적, 탈선적' 등처럼 생산성이 높은 파생어[30]나, '불쪼이다, 자연적생활, 지진두부, 직접관계, 찍소리못하다, 찍소리없다' 등처럼 구적 특성을 지닌 합성어[31]나, '불매, 붕, 자자' 등처럼 어근적 특성만을 보이는 한자어[32]를 표제어에서 제외하였다.

이상 살펴본 표제어의 삭제 양상과 관련지어 특기할 점은 삭제한 한자어

---

28) '비빈밥'은 "그때 그때에 되는 대로 비벼서 먹는 밥"으로, '비빔밥'은 "고기붙이와 나물붙이를 섞고 온갖 양념과 고명을 더하여 비벼서 맛있게 만든 밥"으로 풀이되어 있다.

29) 처음에 '잡수시다'를 "잡수다②보다 더 높이는 말"로 풀이했는데, 이는 '잡수다'에 추가된 '-시-'의 의미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중적인 높임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표제어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0) 『원고본』에서는 생산성 높은 '-的' 파생어라 할지라도 '비논리적(非論理的)'처럼 굳어진 것으로 판단할 때는 삭제하지 않았는데, 출판본에서는 이 또한 삭제된다.

31) (B)와 (C)를 통해 살펴봤듯이, 추가한 표제어라도 구적 특성이 분명한 합성어는 수정 과정에서 삭제하였다.

32) '붕'을 표제어에서 제외하면서도 (Cㄷ)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붕하다(崩-)'를 표제어로 추가한 것, '불매'와 '자자'를 제외하면서 그 부표제어인 '불매하다'와 '자자하다(藉藉-)'를 주표제어로 바꾼 것, (Cㄷ)처럼 '불순하다'와 '불연하다'를 추가하면서 어근인 '불순'과 '불연'을 추가하지 않은 것 등은 우리말에서 한자 어근의 쓰임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중 일부를『큰 사전』이후에 출판된 사전에서 수록했다는 사실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표제어로 판정하여『큰 사전』에서 제외한 '불경기, 불경죄, 불문법, 시보' 등의 전문어와 '불경지설, 불로하다, 십이분, 지차불선, 진기력, 진기성, 탈속반, 탑연, 탑용' 등의 일반 한자어들이 이후 사전에 수록되어 현재 사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보면,『원고본』의 수정 과정에서는 (B)와 (C)에서처럼 한자어 표제어를 광범위하게 추가하면서도, 한자어의 우리말화 여부를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했었음을 알 수 있다.

(2) 표제어의 배열

① 표제어 배열 방식의 변화

표제어 배열 방식에서『원고본』과 출간본의 차이는『원고본』의 수정 과정 중에 나타난다. 첫째,『원고본』에서는 속담과 관용구를 단어 표제어와 동일한 자격으로 배열하였다가 수정 과정에서 속담과 관용구를 중심 단어의 부표제어로 처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아래 (E)에 제시하였다. 둘째,『원고본』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원고본』 중 'ㄱ' 부분에서 어근에 따라 합성어를 배열한 경우가 보인다. 이는『원고본』 작성 당시 어근에 따른 표제어 배열을 고려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아래 (F)에 제시하였다.

(E) 수정 전『원고본』에서의 속담과 관용구 배열

ㄱ. **연못(蓮-)**
연못골 나막신 신기다
연무

ㄴ. **열**[1] 아홉에 하나를 더한 수
열[2] "총열"의 준말
(…)
열기(熱氣)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열김
열나다

(…)
열ㅅ번 듣는것이 한번 보는것만 못하다
ㄷ. **왼새끼**
왼새끼 꼰다
ㄹ. **자던=중도=떡=다섯=개(-個)**

(E ㄱ-ㄷ)에 제시한 표제어의 배열은 수정 과정에서 바뀌게 되는데, (E ㄱ)의 "연못골 나막신 신기다"는 이 속담의 중심어인 '신기다'의 부표제어로, (E ㄴ)의 "열길 물속은 (…)"과 "열ㅅ번 듣는 것 (…)"는 두 속담의 공통 중심어인 '열[1]'의 부표제어로, (E ㄷ)의 "왼새끼 꼰다"는 '왼새끼'의 부표제어로 재배치된다. 관련된 속담 및 관용구를 중심어 아래에 모아놓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수정 전 『원고본』에서처럼 속담과 관용구를 독립 표제어로 처리할 때는 구와 단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데, (E ㄹ)처럼 일부 관용구 표제어를 한 단어로 처리한 예에서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혼선을 확인할 수 있다.

(F) 어근에 따른 배열 방식
ㄱ. **가뜩** 「副」"가뜩이나"의 준말. [- 죽을지경인데, 흉년까지 들었다.] **-=에** 「副」그 위에 또. 엎치기에 덮치기로. [그러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 너까지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나** 「副」이미 있는 사정만으로도 극도로. (…)
ㄴ. **가계(家計)** 「名」가정(家庭)의 생계(生計). **-=경제(家計經濟)** 「名」가정생활에 관한 경제. **-=부(家計簿)** 「名」한 가정의 생계(生計)의 수지(收支)를 기록하는 장부. **-=부기(家計簿記)** 「名」한 가정의 생계(生計)의 수지를 기록하는 부기.
ㄷ. **가격표기[價格表記]**((名))내용물(內容物)의 가격(價格)을 거죽에 적어 나타냄. **- =우편물[價格表記郵便物]**((名))[法]가격표기를 한 우편물

위에서 보인 어근에 따른 표제어 배열[33]은 현재 남아 있는 『원고본』 중

33) 표제어에 잇대어서 복합어를 배열하는 방식은 金澤庄三朗의 『廣辭林』(1934)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민수, 「「큰 사전」과 건재—한글학회, 「큰 사전」 편찬사와 정인승 주간—」, 『어문연구』 24-4, 어문교육연구회, 1996 참조.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표제어 배열은 조일사전의 일종인 『朝鮮語辭典』(1920)과 일조사전의 일종인 『鮮譯國語大辭典』(1919)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것이어서,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편찬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경봉, 「조선총독부 편

‘ㄱ 자모 표제어’ 일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열방식은 원고 작성 중에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Fㄷ)처럼 ‘가격표기’에 ‘가격표기우편물’을 포함하면서도, ‘가격표기’를 ‘가격(價格)’에 포함하여 배열하지 않은 이유는 파악하기 어렵다. (Fㄷ)의 처리 방식을 보면, 『원고본』 작성 당시 어근에 따른 배열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동음어와 다의어의 조정에 따른 배열 변동

『원고본』의 수정 과정에서는 동음어와 다의어가 조정되기도 하는데, 이는 의미 분석이 정교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의 결과, 동음 표제어 중 일부가 한 표제어의 의미항목이 되기도 하고, 한 표제어의 의미항목 중에서 일부가 별도의 표제어로 독립되기도 하였다.

(G) 동음어와 다의어의 조정 양상
ㄱ. 자국
자국 [名] 무엇이 나 지나간 자리. 뒤에 남긴 흔적. (자곡. 자옥. 자욱. 자족. 자죽). (二)사물(事物)이 생겨 난 본처(本處). 〈1차 수정〉 **자국** [이] ①물체와 물체가 닷거나 연장으로 나무나 돌 따위를 깎거나 할 때에 남은 흔적. (자곡. 자옥. 자욱. 자족. 자죽). ②물건이 생산(生産) 또는 집산(集散)되는 곳이나 일의 근원(根源)이 발단(發端)된 곳. ③어느 고정(固定)된 그 자리. 〈2차 수정〉 **자국[1]** [이] 어떠한 물건이나 곳에 다른 물건이 닿아서 생긴 자리. [발-. 손톱-] (자곡. 자옥. 자욱. 자족. 자죽). **자국[2]** [이] ①물건이 생산(生産) 또는 집산(集散)되는 곳이나 일의 근원(根源)이 발단(發端)된 곳. ②붙배기 붙박이로 있어야 할 자리.
ㄴ. 직하
직하(直下)[名](一)바로 그 아래. (二)곧게 내려감. 똑바로 내리질림. **=하다** [自] 곧게 내려가다. / **직하(直下)**[名]((漢醫)) 이질(痢疾)의 중증(重症). 〈1차 수정〉 **직하(直下)**[이]①바로 그 아래. ②곧게 내려감. 똑바로 내리질림.③((한의)) 이질(痢疾)의 중증(重症). **=하다** 곧게 내려가다.

《조선어사전》의 편찬 맥락에 대한 사전학적 고찰」, 『국어학』 81, 국어학회, 2017a 참조.

(Gㄱ)은 두 번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예이다. 1차 수정에서 의미항목이 늘었다가 2차 수정에서는 이를 두 개의 동음어로 구분하였다. 2차 수정에서 용례를 추가한 것을 볼 때, 사용례를 통해 의미 분석을 정교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ㄴ)은 두 개의 동음어로 처리된 ‘직하’를 세 개의 의미항목을 지닌 한 단어로 처리한 예인데, 이러한 처리는 의미적 관련성에 주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미시구조적 측면

미시구조적 측면에서의 수정 양상은 표제어, 뜻풀이, 관련어, 용례, 문법 및 음운 정보 등의 수정 양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1) 표제어

표제어에 대한 수정 양상은 ‘표제어의 형태 분석’, ‘규범성의 판단의 변화’, ‘대표표제어 교체’의 순서로 살펴볼 것이다.

『원고본』에서 표제어는 단어와 구가 모두 제시되는데, 단어의 경우는 이분지로 형태 분석을 하여 제시한 경우와 다분지로 형태 분석을 하여 제시한 경우로 나뉘고, 구의 경우는 띄어쓰기를 하여 제시한 경우와 다분지 형태 분석을 하여 제시한 경우로 나뉜다. 형태 분석 표시는 ‘=’와 ‘-’이 섞여 쓰이는데, 출판본에서는 ‘-’로 통일되었다.

(H) 표제어의 형태 분석(수정 전/수정/출판본)
ㄱ. 가는=할미=꽃[名]/ [없음]/ 가는-할미꽃[이]
ㄴ.가는=날이=장날[句]/ [없음]/ 가는 날이 장날이라[마디]
ㄷ. 여름고사리=삼[名]/ 여름고사리=삼[이]/ 여름고사리-삼[이]
ㄹ. 자유=방임=주의[名]/ 자유 방임 주의[이]/ 자유 방임 주의[이]
ㅁ. 불 붙는데 키질하기[句]/ 불 붙는 데 키질하기[마디]/ 불 붙는 데 키질하기[마디]
ㅂ. 빚진-죄인[名]/ 빚진-죄인[마디][34]/ 빚진 죄인[마디]

34) ‘구(句)’, 즉 ‘마디’로 범주를 바꿨음에도 형태 분석 표기인 ‘-’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착오로 보

『원고본』의 'ㄱ' 부분은 단어와 구 모두 다분지 형태 분석을, 나머지 『원고본』은 단어만 다분지 형태 분석을 하였고, 출판본은 단어만 이분지 형태 분석을 하여 제시하였다. 그런데 (Hㄹ)처럼 수정 전 다분지 형태 분석을 한 합성어 표제어를 수정 과정에서 띄어쓰기를 한 구 형태로 제시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표제어에 대한 고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원고본』의 수정 과정에서 표제어가 교체되거나 대표 표제어가 교체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제어를 교체하는 수정은 표준어 선정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표제어의 규범성이 달라지는 경우와 뜻풀이가 이루어지는 표제어를 교체하면서 표제어의 대표성이 달라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I) 규범성 판단의 변화
ㄱ. 여라문~여남은, 태끈스럽다~타끈스럽다, 자그만치~자그마치, 자봉침(自縫針)~자봉틀, 직수굿하다~직수굿하다, 자동차즉통(自動車唧筒)~자동차펌프(自動車pumpe), 불구멍~불집, 식빵(食-)~식팡, 신기(新奇)스럽다~신기롭다 (…)
ㄴ. 불이나케~부리나케, 일ㅅ군~일군, 자긋이~자그시, 비방울~빗방울, 타우얼~타울 (…)

(Iㄱ)의 왼쪽 표제어는 수정 전 『원고본』에서 표준어로 제시한 것이고, 오른쪽 표제어는 수정 후 『원고본』에서 표준어로 제시한 것이다. 표준어가 바뀌면서 왼쪽의 표제어에는 비표준어임을 나타내는 '《' 표시가 붙었다. 이중 중국식 한자어 '唧筒'을 영어 기원 외래어인 '펌프'로 교체한 것은 문화적 영향에 따라 표준형을 바꾼 사례로, '식빵'에서 '식팡'으로 표준형을 바꾼 것은 관습보다는 규범 원칙을 우선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Iㄴ)은 표준어의 변경이라기보다는 1946년의 개정 맞춤법에 맞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제어의 표기를 바꾼 예이다.

(J) 대표 표제어의 교체
ㄱ. 불구자(不具者)~병신(病身), 비산(悲酸)~비도산고(悲悼酸苦), 외실(外室)~사

인다.

랑(舍廊), 지문학(地文學)~자연지리학(自然地理學), 타애주의(他愛主義)~애타주의(愛他主義), 타락(酡酪)~우유(牛乳), 탁음(濁音)~유성음(有聲音), 외국전보(外國電報)~해외전보

ㄴ. 비녀(婢女)~계집종, 비환(臂環)~팔가락지, 비취(翡翠)~쇠새, 시체(屍體)~송장, 자두(紫-)~오얏, 타국조(打鞠鳥)~검은도요

ㄷ. 비웃~청어(靑魚), 외자~외상(外上)[35]

ㄹ. 불란서(佛蘭西)~프랑스(France), 자동계단(自動階段)~에스컬레이터(escalator)

ㅁ. 보이코트(Boycott)~불매동맹(不買同盟), 타널(Tunnel)~굴②[36], 핑퐁(ping-pong)~탁구

위의 예들은 뜻풀이가 이루어지는 대표 표제어가 바뀐 예이다. 즉, 원고 작성 시 대표 표제어였던 ‘불구자, 비녀, 비산, 비웃, 불란서, 보이코트, 외자’ 등을 ‘병신, 계집종, 비도산고, 청어, 프랑스, 불매동맹, 외상’ 등으로 교체한 것이다. 이러한 대표표제어의 교체는 사용 빈도, 언어 감정 등을 고려한 어휘 평정(評定)의 결과를 반영하고, 본말 중심의 뜻풀이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Jㄱ)은 한자어 간, (Jㄴ, ㄷ)은 한자어와 고유어 간, (Jㄹ, ㅁ)은 ‘외래어’와 ‘한자어 및 고유어’ 간 평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중 두드러진 것은 한자어와 고유어 간 평정의 결과를 반영한 (Jㄴ, ㄷ)인데, 한자어에서 고유어로의 교체에 비해 고유어에서 한자어로의 교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37] 고유어 우선 원칙은 대표표제어를 외래어에서 고유어로 바꾼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정 전 『원고본』에서는 ‘타널’의 이전 표

35)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 원고를 보면, ‘외상’에 대해 뜻풀이를 하지 않고 ‘외자’를 대표 표제어로 제시하면서도, ‘외자’에 대해 비표준어 표시를 하고 바른 표제어로 ‘외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원고 작성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6) 수정 전 뜻풀이는 ‘탄넬’에서 하였지만 ‘굴’로 대표표제어를 이동시키면서 ‘탄넬’대신 ‘타널’을 바른 외래어 표기로 수정하였다.

37) 어류로서 ‘비웃’에 대한 풀이는 ‘청어’에서 이루어졌지만, ‘비웃’의 의미 영역(“청어”를 식료품으로 특히 생선으로 일컫는 말)을 별도로 밝힌 점, (Dㄷ①)에서처럼 ‘자반청어’를 삭제하고 ‘자반비웃’으로 대체한 점 등을 보면, 고유어를 대표표제어에서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외자’를 원어 표시를 하지 않고 비표준어로 처리한 것을 볼 때, ‘외자’를 고유어로 봤다기보다는 원어 표시를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인 '탄넬'의 동의어로 '수도(隧道), 톤넬, 돈네루'만을 제시했었음을 보면, '굴'이 대표표제어가 된 것은 '타널'을 대체할 고유어를 특별히 발굴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대표 표제어의 교체는 고유어를 대표표제어로 삼는다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마땅한 고유어가 없을 경우 어휘 평정의 결과를 참고해 한자어와 외래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뜻풀이

『원고본』의 수정 과정이 별도의 사전학적 탐구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밝혔다. 이때 뜻풀이와 관련한 수정 내용은 이러한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K) '자기(自己)'에 대한 뜻풀이의 수정 과정
ㄱ. **자기(自己)** [名](一)=자신(自身). (二)[代] 스스로의 저. (제 이인칭=第二人稱, 또는 제 삼인칭=第三人稱으로 다 쓰고 혹은 제 일인칭=第一人稱으로 쓰기도 하지마는 그것은 제 이인칭의 의미=意味로 쓰는 것.)
ㄴ. 수정 과정: 〈1차 수정〉 [이]①=자신(自身). ②[대] 스스로의 저. ③((철))=나2②.(상대자와 말할 때는 그 경우를 따라 '자신'으로도 쓰이며, 상대자(相對者) 또는 제 삼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임.) 〈2차 수정〉 [이]①=저1. ②((철))=나2②. ②[대]말하는 사람이 상대자를 좀 홀하게 가리키거나 또는 상대자와 말할 때, 제 삼자를 홀하게 가리키는 말. 〈3차 수정〉 [이]①=저1. ②((철))=나2②. 〈출판본〉 [대]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를 도로 가리키는 일컬음. ("남"의 대). (참고: 저②)

'자기'에 대한 뜻풀이 수정 과정을 보면, 2차 수정까지는 뜻풀이를 정교화함과 동시에 해당 의미항목의 문법 범주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지만, 3차 수정과 출판본에서의 수정은 용법을 축소 적용하여 뜻풀이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수정 국면마다 어휘 처리의 관점이 달라진 것이다. 특히 『원고본』과 출판본의 뜻풀이 관점이 달라진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표준과 『고려대』의 풀이는 모두 1, 2차 수정 단계에서와 같은 관점에서

뜻풀이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L) '자기'에 대한 현대 국어사전의 처리
ㄱ. (표준국어대사전) **자기(自己)** [명사] ①그 사람 자신. ②[철학]대상의 세계와 구별된 인식·행위의 주체이며, 체험 내용이 변화해도 동일성을 지속하여, 작용·반응·체험·사고·의욕의 작용을 하는 의식의 통일체. [대명사]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ㄴ.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자기(自己)** [명사] ①당사자 자신. ②[철학]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일하는 주체. [대명사] ①한 문장에서 앞에 언급된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말. 주로 앞에 언급된 사람이 삼인칭인 경우가 많다. ②주로 젊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스스럼없이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

이처럼 최근 출판된 국어사전과 『원고본』을 비교해 보면, 『원고본』의 수정 과정에서 의미 풀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주목할 것은 의미 풀이를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의미항목의 조정이 이루어진 점이다.

(M) 뜻풀이의 정교화와 의미항목의 추가
ㄱ. **타다(1)** [自] (一) 불이 붙어 들어가다. (二) 되게 뜨거워 검어지다. (三)애가 켜여서 가슴 속에 불이 붙은 듯하다. 〈1차 수정〉 [제] ①불이 붙어 벌겋게 되거나 불꽃이 일어나다. ②몹시 뜨거워 빛이 까맣게 되다. ③마음이 어지럽고 괴로와 가슴 속에 불이 붙은 듯한 느낌이 나다.
ㄴ. **타다(2)** [他] (一) 실어 옮기는 기구에나 짐승의 몸에 몸을 얹다. (옛말: ᄐᆞ다). (二) 발을 붙이기 어려운 자리에 위트롭게 가다. (三) 틈을 살피어 얻다. 구멍을 따라 들다. 〈1차 수정〉 [남] ①싣는 물건이나 짐승의 몸에 몸을 얹다(옛말: ᄐᆞ다1). ②산이나 나무나 줄을 올라 가다. ③틈을 살피어 얻다. ④얼음 위를 걷거나 뛰거나, 쓸매로 지치다.
ㄷ. **타다(4)** [他] 의무적으로나 또는 동정적으로 갈라 주는 것을 받다. 〈1차 수정〉 [남]①재산, 월급, 배급, 상 따위를 받다. (옛말: ᄐᆞ다2) ②복, 재주 따위를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받다.
ㄹ. **타다(7)** [他] (一) 독한 기운이 몸에 특별히 쉬 받다. (二)부끄럼이나 노염을 특별히 쉬 느끼다. 〈1차 수정〉 [남] ①독한 기운을 몸에 특별히 쉬 옮다.

②시절이나 기후의 독특한 기운을 쉬 느끼어 몸이 파리하여지다. [봄을 -·
여름을 -· 추위를 -· 더위를 -]. ③손거친 사람에게 해를 입다. (손을 -).
④부끄럼이나 노염이 이르는 말을 특별히 쉬 느끼다.

ㅁ. **외설(猥褻)** [名] 무랍없음. 〈1차 수정〉 [이] ①매우 무랍없음. ②남녀간의 색정(色情)에 관하여 난잡한 일.

ㅂ. **파동(波動)** [名](一) 물결의 움직임. (二)((物)) 물질(物質)의 한쪽을 진동(振動)시킬 때 (…) 〈1차 수정〉 ①물결의 움직임. ②계속하여 내려온 일에 사회적(社會的)으로 일으킨 큰 변동. ③((물)) 물질의 한 쪽을 진동시킬 때 (…)

(Mㄱ)에서는 수정 과정에서 뜻풀이가 구체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Mㄴ, ㄷ)에서는 '발을 붙이기 어려운 자리'를 '산이나 나무나 줄'로 '의무적으로나 동정적으로 갈라 주는 것'을 '재산, 월급, 배급, 상'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항목을 추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미항목의 추가는 해당 동사가 취하는 목적어의 의미부류를 구분한 결과이다. (Mㄹ)에서는 의미항목을 추가하면서 해당 의미항목에 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의미항목이 용법에 근거하여 추가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Mㅁ)은 해방 후 '외설'이 성적(性的)인 문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빈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된 상황을, (Mㅂ)은 '파동'의 의미가 '물결의 움직임'에서 '사회적인 변동'으로 확장된 양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의미를 정교하게 기술하는 과정은 (M)처럼 의미항목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항목을 축소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미항목의 축소는 그간 의미의 변화나 의미를 기술하는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N) 의미항목의 축소

ㄱ. **자격(資格)** [名] (一) 신분(身分)과 지위(地位). (二) 근본이 되는 바탕과 표준(標準)이 되는 조건(條件). (三)=재목(材木) 〈1차 수정〉 [이] ①신분(身分)과 지위(地位). ②어떠한 일에 당할 만한 조건.

ㄴ. **불통(不通)** [名] (一) 막혀서 통하지 못함. (二)소식이 끊여서 오고 가지 아니함. 교제(交際)가 되지 아니함. (三) 글을 익숙하게 외우지 못하고 막힘. 〈1차 수정〉 [이] 불통(不通) ①막혀서 통하지 못함. ②교제(交際)가 되지 아

니함.

ㄷ. **불리(不利)** [名] (一)이롭지 못하고 해로움 (二)길하지 못하고 재앙이 됨. 〈1차 수정〉 [이] 이롭지 못하고 해로움.

ㄹ. **타락(墮落)** [名](一) 높은 곳에서 떨어짐. (二) 마음이 약한 사람이 나아가는 * 제 신분을 지키지 못하고 못된 구덩으로 빠져 들어감. (三)((佛))불법(佛法)의 마음이 없어지고 속세(俗世)에 떨어짐. (四)((예))죄가 없는 세상에 살던 사람이 죄를 범하여 저급(低級) 생활에 떨어짐. 〈1차 수정〉 [이] ①잡되게 놀아 못된 구덩이에 빠짐. ②((불교))도심(道心)을 잃고 속심(俗心)으로 떨어짐. ③((예수))죄가 없는 세상(世上)에 살던 사람이 죄를 범(犯)하여 저급(低級) 생활(生活)에 떨어짐.

(Nㄱ)은 ‘자격’과 ‘재목(材木)’을 관련짓는 언어적 연상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기술이라 할 수 있고, (Nㄴ)은 글(경전)을 외우는 것과 관련한 전통이 없어진 상황을 반영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Nㄴ)에서는 (一)과 (二)의 의미항목을 구분하는 변별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하나로 통합했는데, 이는 (Nㄷ)의 의미항목을 통합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Nㄹ)에서는 ‘타락’의 축자적 의미가 통용되지 않는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 이를 통해 실제 통용되는 의미를 중심으로 기술한다는 뜻풀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38]

(M-N)처럼 의미항목이 추가되거나 축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 분석을 통해 표제어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거나 의미 영역을 조정하는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O) 의미 풀이의 상호 조정

ㄱ. **타박-거리다** [自] 활발하고 엄연하게 걷는 발자취 소리로 가다. (타박대다) (〈터벅거리다).

타박-타박-하다 [形] (一) 가루 음식 같은 것이 진기가 없어 씹기에 조금 빡빡하다. (二) 기운이 지치어서 걸음이 잘 걸리지 아니하다. (〈터벅터벅하다).

38) 실제 통용되는 의미를 우선한다는 원칙은 간혹 축자적 의미의 쓰임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추가 표제어 중 ‘잡음(雜音)’을 “잡음(雜音)[이] 부당한 간섭으로 나는 소리”로 풀이한 것이 그 예이다. 출판본에서는 의미항목을 추가하여 “①불규칙한 파동으로 되어, 불유쾌한 느낌을 일으키는 소리. ②부당한 간섭으로 나는 어지러운 소리”로 수정하였다.

ㄴ. **타박-거리다** [제] 다리에 힘이 없어 모래 위를 걷는 것 같이 걸어가다(〈터벅거리다).

타박타박-하다 [어] 가루 음식 같은 것이 진기가 없어 씹기에 조금 빡빡하다. (〈터벅터벅하다2) (참고: 팍팍하다①).

ㄷ. **탁발(卓拔)**[名] =탁월(卓越). / 탁월(卓越) [名] 남보다 뛰어남. (탁발=卓拔, 탁출=卓出). 〈1차 수정〉 **탁발** [이] 여럿 가운데 홀로 특별히 뛰어남. / **탁월** [이] 월등하게 뛰어남. (참고: 탁발=卓拔, 탁출=卓出). 〈출판본〉 **탁발** [이] 여럿 가운데 홀로 특별히 뛰어나 있음. (참고: 탁월=卓越, 탁출=卓出) / **탁월** [이] 월등하게 뛰어남. (참고: 탁발=卓拔, 탁출=卓出)

ㄹ. **타치(英 Touch)** (一)((體))배구(排球)에서 쓰는 말이니, 바로 위에 있는 공을 또는 미끄러져 내려오는 공을 전위(前衛)가 뛰어 오르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공을 쳐 내려 가지고 다시 자기 마음대로 치는 방법. (二)((畵)) 서양화에서 쓰는 말이니, 붓질을 함. **〈1차 수정〉** ①다른 물건이나 어떠한 곳에 손을 댐. ②((그림))서양화에 있어서의 붓질. **〈출판본〉**((체)) ①다른 물건이나 어떠한 곳에 손 따위를 댐. ②((그림))서양화에 있어서의 붓질.

(Oㄱ,ㄴ)에서는 (Oㄱ)에 제시한 '타박타박하다'의 두 번째 의미항목을 (Oㄴ)의 '타박거리다'로 이동시키면서 두 단어의 의미를 조정하고 있다. 관련어 정보를 다듬으면서 의미 수정의 근거를 보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ㄷ)에서는 동의어로 표시했던 두 단어(탁발, 탁월)를 각각 다른 뜻의 단어로 독립시키고 각각의 표제어를 참고어로 제시하고 있다. (Oㄹ)에서는 체육의 전문어 항목을 일반어로 바꾸면서 일반적 쓰임에 맞게 뜻풀이를 바꾸었다. 출판본에서는 이를 체육의 전문어로 처리했지만 뜻풀이는 유지했다.

사전에서 뜻풀이의 정교함은 뜻풀이의 체계화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동일한 부류의 어휘를 동일한 패턴으로 풀이하거나 어휘 체계를 고려하여 뜻풀이 어휘를 조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P) 뜻풀이의 체계화 양상

ㄱ. **여름=냉면(- 冷麪)** [名]쇠고기나 닭고기를 삶은 (…) 설탕과 겨자와 초를 친 것. 〈1차 수정〉 **여름 냉면(- 冷麪)** [이] 쇠고기나 닭고기를 삶은 (…) 설탕과 겨자와 초를 친 음식.

ㄴ. **외=보돌이** [名] 오이를 썰어서 소금에 잠ㅅ간 저린 다음에 기름에 볶은 것.

〈1차 수정〉 [이] 오이를 썰어서 소금에 잠간 절인 다음에 기름에 볶은 음식.

ㄷ. **불-개미** [名]((動)) 개미 과(科)에 딸린 개미의 한가지. (…) 〈1차 수정〉 [이] ((동)) 개미과(蟻科)에 딸린 곤충의 한 가지. (…)

ㄹ. **자동차=부(自動車部)** [名]자동차(自動車)를 장만해두고 손을 태워주고 삯을 받는 일로 영업(營業)을 하는 곳. 〈1차 수정〉 [이] 자동차를 장만해 두고 손을 태워 주고 삯을 받는 일로 영업을 하는 가게. 〈출판본〉 [이] 자동차를 장만해 두어 손을 태워 주고, 삯을 받는 영업소.

ㅁ. **잡식(雜植)** [名] 정조식(正條植)이 아니고 되는대로 막심는 모. 〈1차 수정〉 [이]((농)) 정조식(正條植)이 아니고, 모를 되는 대로 막 심음. -하다[남. 여벗]

(Pㄱ, ㄴ)은 ‘것’이라는 풀이말을 표제어의 성격에 따라 부류화한 ‘음식’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부류화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Pㄷ)에서는 “개미의 한가지”에서 “곤충의 한 가지”로 수정하면서 ‘개미’와 ‘곤충’의 분류 관계를 뜻풀이에 포함하고 있다. (Pㄹ)의 경우 ‘곳’을 ‘가게’로 수정하였다가 출판본에서는 ‘가게’를 ‘영업소’로 다시 수정하였다. 이러한 처리를 부류화의 관점에서 보면 뜻풀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류를 세분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Pㅁ)은 표제어의 문법적 성격에 따라 뜻풀이를 체계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서술성 명사인 ‘잡식’의 특성에 따라 ‘되는 대로 막 심는 모’가 아니라 ‘모를 되는 대로 막 심음’으로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부표제어로 ‘잡식하다’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이를 보면, 표제어의 품사에 맞춰 뜻풀이를 끝맺는 형식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같은 명사라도 명사의 성격에 따라 뜻풀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뜻풀이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Q) 표제어의 관계를 고려한 뜻풀이

ㄱ. **타개(打開)** [名] 헤쳐서 열음(→엶). / **타개책(打開策)** [名] 얽흐러진 일을 깨쳐서 열 방책(方策). 〈1차 수정〉 **타개(打開)** [이] 얼크러지거나 막힌 일을 잘 처리하여 나아갈 길을 엶. / **타개-책(打開策)** [이] 타개할 방책

ㄴ. **자격=심사(資格審査)** [名]((法)) 자격을 살피어 봄. 〈1차 수정〉 **자격 심사(資**

格審査) [ㅇ] 자격을 살피어 조사(調査)함.

수정 전 『원고본』에서는 (Q ㄱ)의 '타개책'을 풀이하면서 '타개'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반면, 수정 과정에서는 '타개책'의 풀이에 '타개'를 포함함으로써 '타개'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타개책' 자체의 풀이로는 간략하지만, '타개'와의 관계 속에서 풀이는 더 정교해졌다고 할 수 있다. (Q ㄴ)의 '자격심사'에서는 수정 과정에서 '심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사함'이라는 풀이말을 포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고본』의 'ㅅ' 부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의 풀이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출판본에서 '심사'를 "자세하게 조사함"이라고 풀이한 것을 볼 때, (Q ㄴ)에서 '조사함'이라는 풀이말을 포함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 기술의 정교화는 뜻풀이의 문구를 구체화하는 것임을 앞서 지적한 바 있는데, 구체화의 방향으로서 두드러진 것은 가급적 한자어를 배제하고 고유어 표현으로 뜻풀이를 수정한 것이다. 수정 전 『원고본』에서는 한자어 표제어의 원뜻을 밝히고 실제 사용 의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풀이하였지만, 수정 과정에서는 한자어의 실제 사용 의미를 중심으로 풀이하였다. 또한 수정 전에는 풀이에 사용된 모든 한자어에 철저하게 한자를 병기했지만, 수정 과정에서는 한자 병기를 최소화하면서 일부 한자어 표현을 고유어 표현으로 바꾸었다.

(R) 한자 및 한자어의 처리 양상

ㄱ. **불학(佛學)** [名]((佛)) 불교(佛教)의 뜻을 배움. 곧 불교의 학문(學問). 〈1차 수정〉 [ㅇ]((불교)) 불교의 학문(學問).

ㄴ. **불치(不治)** [名] 병이 고쳐지지 아니함. 고칠 수 없는 병. 〈1차 수정〉 [ㅇ] 고칠 수 없는 병.

ㄷ. **타박-상(打撲傷)** [名] 때려서 다침. 부디(딪)쳐 다침. 〈1차 수정〉 [ㅇ] 때려서 난 상처. 부딪혀서 난 상처 (준말: 타상=打傷)

ㄹ. **외국=우편(外國郵便)** (…) 국제조약(國際條約)이나 약정(約定)에 의하여 한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 발수(發受)되는 우편. 〈1차 수정〉 외국 우편(外國郵便)… 국제조약(國際條約)이나 약정(約定)에 의하여 한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 보내고 받고 하는 우편.

ㅁ. **탄산-수(炭酸水)** 탄산(炭酸)이 물에 풀린 액체(液體). 천연(天然)으로는 탄산천(炭酸泉)이 되어서 남. 인공적(人工的)으로는 많은 내압(耐壓)의 금속성(金屬性) 통 안에 눌려진 물에 탄산 가스를 풀어서 만듦. 〈1차 수정〉 탄산이 물에 풀린 액체. 천연으로는 탄산천(炭酸泉)이 되어서 남. 인공적으로는 많은 내압(耐壓)의 금속성(金屬性) 통 안에 눌려진 물에 탄산 가스를 풀어서 만듦.

(Rㄱ-ㄷ)은 국한문 글쓰기가 약화된 징표로서 의미가 있다. 한문의 문법구조에 따라 의미를 파악한 결과를 뜻풀이에 반영하는 데에서 벗어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개념화 양상을 뜻풀이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정 전 『원고본』에서는 한문의 문법구조에 따라 ‘학(學)’에서 ‘배우다’라는 의미를, ‘치(治)’에서 ‘고치다’라는 의미를, ‘상(傷)’에서 ‘다치다’라는 의미를 제시하였지만, 수정 과정에서는 ‘불학’, ‘불치’, ‘타박상’을 각각 ‘학문’, ‘병’, ‘상처’로 개념화한 결과만을 뜻풀이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Rㄹ, ㅁ)은 수정 과정에서 한자어를 고유어 표현으로 전환하거나 병기한 한자를 삭제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Rㄹ)에서는 ‘발수되다’라는 한자어를 ‘보내고 받고 하는’이란 고유표현으로 바꾼 사례를, (Rㅁ)에서는 표제어의 원어 표기에 나온 ‘炭酸’을 비롯해 굳이 병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液體, 天然, 人工的’을 삭제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본』의 조성과 출판본의 완간 사이에는 15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고, 그 시기에 한국 사회는 정치,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뜻풀이의 수정 과정에서는 이에 따른 언어 인식의 변화 양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 정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뜻풀이

ㄱ. **태극-기(太極旗)** 한국(韓國) 때의 국기 (…) 〈1차 수정〉 우리 나라의 국기 (…)

ㄴ. **한글** [名] 정음(正音)을 맨 조선말로만 새기어서 지은 것. (…) ㄱ 기역 (…) 〈1차 수정〉 조선글의 이름. 본래 한자로 된 정음(正音)을 맨 조선말로만 새

기어서 지은 것. (…) ㄱ 기역 (…) 〈2차 수정〉 우리 나라 글의 이름. 본래 한자로 된 정음(正音)을 맨 나랏말로만 새기어서 지은 것. (…) ㄱ 기역 (…) 〈3차 수정〉 우리 나라 글의 이름. 훈민정음 28자모 가운데 현대 말에 쓰이는 24자모, 곧 ㄱ(기역) (…)

ㄷ. **불-침략-조약(不侵略條約)** [名]((社)) 소비에트 로서아(露西亞)의 주창(主唱)하는 평화정책(平和政策)의 소산(所産)으로 소련(蘇聯)과 다른 나라 사이에 일체(一切)의 침략행위(侵略行爲)의 철폐(撤廢)에 관한 조약. 〈1차 수정〉 **불침략-조약(不侵略條約)** [이][사회]두 나라 사이에 일체(一切)의 침략행위(侵略行爲)의 철폐(撤廢)에 관한 조약. 〈출판본〉 **불침략조약** = 불가침조약

ㄹ. **여성미(女性美)** 정숙(靜淑)하고 전아(典雅)하고 유화(柔和)한 미. (“남성미=男性美”의 대). 〈1차 수정〉 건강하고 튼튼하고 고요하고 매초롭고 얌전 아담하고 부드럽고 이여쁜 여성다운 아름다움. (“남성미=男性美”의 대). 〈2차 수정〉 튼튼하고 고요하고 매초롭고 얌전 아담하고 부드럽고 이여쁜 아름다움. (“남성미=男性美”의 대) 〈3차 수정〉 여자답게 아름다운 점. (“남성미=男性美”의 대).

(Sㄱ, ㄴ)은 독립국가의 국어사전임을 의식하며 수정한 예인데, ‘한국’과 ‘조선’이란 명칭을 ‘우리 나라’로 교체한 것에서 그러한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Sㄷ)은 특정 조약으로서의 ‘불침략조약’이 일반화된 의미의 ‘불침략조약’으로 바뀌면서, ‘불침략조약’과 ‘불가침조약’[39]이 동의어가 되는 맥락을 반영한 것이고, (Sㄹ)은 사회문화적 급변기를 거치며 ‘여성관’이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용역을 추가하여 뜻풀이를 풍부하게 하는 것도 수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다.

(T) 사용역 정보를 추가한 뜻풀이

ㄱ. **자가(自-)**[代] “자가(自家)”의 변한 말. (←自家). 〈1차 수정〉 [대] “자기”보다 좀 대접하여 일컫는 말.

ㄴ. **여부인(如夫人)** [名] 첩(妾)의 딴 이름. 〈1차 수정〉 [이] 남의 첩(妾)을 높여 일컫는 말.

39) 『원고본』에 불가침 조약(不可侵條約)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국경(國境)을 침입(侵入)하지 아니하기를 언약하는 조약”으로 풀이되어 있다.

ㄷ. **외간(外簡)** [名] 사나이의 편지. 〈1차 수정〉 [이] 사내의 편지. (내간=內簡의 대)(여편네의 말).
ㄹ. **외간남자(外間男子)** [名] 겨레붙이 밖의 남자. 〈1차 수정〉 [이] 겨레붙이 밖의 남자. (여편네의 말).
ㅁ. **((외눈퉁이** [名] =애꾸눈이. 〈1차 수정〉 **외눈퉁이** [이] "애꾸눈이"의 낮은 말.

(T)의 예들은 사용역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어휘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예이다. 이를 보면, 수정 과정에서 사용역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용역을 추가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달라졌음을 뜻하기 때문에, (Tㅁ)처럼 수정 전 『원고본』에서 비표준어로 처리했던 표제어가 사용역이 추가되면서 비표준어 표시가 삭제되기도 했다.

⑶ 문법 및 음운 정보

① 문법 정보

문법 정보와 관련한 수정은 문법 용어를 한자어에서 고유어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용어 표기의 변경 이외에 용어 체계의 변동도 있었는데, 범례에 제시한 문법 용어 중에서는 '補音=보조음'[40]과 '略音=준소리'[41]이 삭제되었고, '준말(略語)'와 '우 變則'이 문법 용어로 추가되었다. 그런데 수정 과정에서 특정 표제어의 문법 범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거나 문법 범주를 추가하여 설명하는 등의 변화는 사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U) 품사의 변경
ㄱ. **불과(不過)**[副] 어느 정도(程度)에 지나지 못하게 그러할 뿐임. (불과시=不過是). 〈1차 수정〉 [언] 다음에 말하려는 정도(程度)에 지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 불과시(不過是)**[副] =불과(不過). 〈1차 수정〉 [엇] 정도(程度)에 있어 겨우.

---

40) (책)이(나), (먹)으(면), (문)ㅅ(고리), (안)ㅎ(밖), (저)ㅂ(때) 등이 예로 제시되어 있다.
41) 돼(=되어), 줘(=주어) 등이 예로 제시되어 있다.

ㄴ. **불급(不及)**[接頭] 다른 말 위에 붙어서 미치지 못함. 못 미침의 뜻으로 쓰는 말. 〈1차 수정〉 [머리] 다른 말 위에 붙어서 미치지 못함. 못 미침의 뜻으로 쓰는 말. 〈2차 수정〉 [이] 미치지 못함. - -하다[어, 여벗]
ㄷ. **여나문** [冠]=여라문. 〈1차 수정〉 [언.이]=여남은1
ㄹ. **여기** [代][名] 거기, 저기에 대하여 이곳. 곧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곳. (〉요기). 〈1차 수정〉 [代][名] 거기, 저기에 대하여 이곳. 곧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곳. (여긔. 〉요기. 준말: 예). 〈2차 수정〉 (대) 이 곳. [엊]이 곳에 (대·엊여긔). (〉요기. 거기, 저기에 상대한 말. 준말: 예).
ㅁ. **타래** (一)[名] 실이나, 또는 고비 따위의 감아서 틀어 놓은 얼마의 분량 (二)[不名] 실이나, 또는 고비 따위의 감아서 틀어 놓은 얼마의 분량을 세는 말. [실 한 -. 고비 두 -]. 〈1차 수정〉 ①[이]실이나, 또는 고비 따위의 감아서 틀어 놓은 얼마의 분량 ②[절이]실이나, 또는 고비 따위의 감아서 틀어 놓은 얼마의 분량을 세는 말. [실 한 -. 고비 두 -] 〈2차 수정〉 [이] 실이나, 또는 고삐 따위의 감아서 틀어 놓은 얼마의 분량(分量). [실 -가 크다]

(U ㄱ)에서 '불과'의 품사는 부사였다가 수정 과정에서 관형사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불과'의 동의어로 처리했던 부사 '불과시'의 뜻풀이를 별도로 하게 되었다. (U ㄴ)에서 '불급'은 접두사였다가 명사로 바뀌었고, (U ㄷ)에서 '여나문'은 관형사로만 처리되었다가 수정 과정에서 관형사와 명사의 특성을 모두 지닌 품사통용어로 처리되었다. (U ㄹ)에서 '여기'는 대명사와 명사의 품사통용어에서 대명사와 부사의 용법을 보이는 단어로 재규정되었다. (U ㅁ)에서 '타래'는 명사와 단위성 의존명사로 구분되었다가 이를 명사로 재규정하면서 의미항목이 축소되고 용례가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용법에 대한 문법적 검토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의 경우는 문법성에 대한 검토의 결과라기보다는 의미적 관련성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표제어의 문법 정보를 수정한 예이다.

(V) 의미적 관련성에 대한 판단과 문법 정보의 수정
ㄱ. **잡아들다** [自] 당하여오다. 닥쳐오다. [가을철이 -]. 〈1차 수정〉 **잡아-들다** [제. ㄹ벗]①어느 시기나, 나이나, 정한 날짜가 가까이 닥쳐오다. [가을철이 -]. ②한계선을 넘거나, 갈림길로 목표를 정하고 들어가다.[지름길로 -]. (〈접어들다). [남. ㄹ벗] 정하여 들다. [집을 -].

ㄴ. **찍찍=거리다** [自] 쥐가 연해 소리를 내어 울다. (찍찍대다). 〈1차 수정〉 [제] 쥐가 연해 소리를 내어 울다. (찍찍대다). [남]①신을 찍찍 끌다. ②글씨 따위의 획이나 종이 따위를 함부로 긋거나 찢다. (찍찍대다)(“직직거리다”의 센말. 〉짝짝거리다②③)

(Vㄱ)의 예는 ‘잡아들다’의 용법에 대한 분석을 심화하면서 자동사와 타동사 용법의 의미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술한 것이다. 용법과 의미의 차이가 논항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에 대한 용례를 통해 문형을 보여주고 있다. (Vㄴ)의 수정 사례는 ‘직직거리다’의 센말로 ‘찍찍거리다’를 추가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찍찍거리다’의 추가로 기존의 ‘찍찍거리다’와의 동음어 여부를 판단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Vㄴ)과 같이 수정하였다. ‘쥐의 울음소리’와 ‘신발 끄는 소리’의 의미적 관련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의미항목에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용법을 함께 기술한 것이다.

② 음운 정보

『원고본』의 범례에는 음운 정보를 기술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고, 이는 출판본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중 『원고본』의 수정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수정 과정에서 적용했다는 점이다.

(Ⓦ) 『원고본』의 범례(4. 발음의 표시)
합성어(合成語)나 한문말이나 또는 특수한 어휘로서 발음을 그릇 알기 쉬운것에는 어휘의 바로 아래 [ ] 안에 그 발음을 보이었음. 이를테면: 콩-엿[-녓] 불시[-씨](不時) 핥이다[할치-] 따위와 같음. (…) 무릇 ‘닿소리(子音) 접변(接變)’의 (일반적) 법칙에 의하여 변하는 발음은 일체 따로 표하지 아니하였음. 이를테면: (국=물[궁물] 속=눈[송눈] 밥=물[밤물]) 속=눈[송-] (맏=누이[만-]) 밥=물[밤-] 엇=먹다[언-] 겉-늙다[건-] 극락[긍낙](極樂) 합력[함녁](合力) 따위(와 같음.)는 발음 표시를 아니 하였음.

‘범례’에 이러한 원칙이 제시되었다면, 『원고본』 작성 때부터 발음 표시가 포함되어야 했겠지만, 원고 작성 시에는 발음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W)에 해당하는 표제어의 발음 표시는 본격적으로 수정이 시작되면서부터 표시가 이루어졌다.

(X) 수정 과정에서 발음 표기가 이루어진 예
불=김[-낌], 불땔=감[-깜], 붉돔[북-], 붉디=붉다[북-북-], 붙=안다[붇-따], 붙=움키다[붇-], 붙임=대[부침-] (…)

(4) 관련어 정보

『큰 사전』은 대표 표제어를 정하여 뜻풀이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본』을 작성할 때부터 동의 관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관련어들을 상세하게 표시하였다. 수정 과정에서 바뀌는 것은 관련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정이다.

(Y) 관련어의 조정
ㄱ. **비망록(備忘錄)** (…) (공장=控帳) 〈1차 수정〉 (…) (총명기=聰明記)
ㄴ. **비매동맹(非買同盟)** =보이코트 〈1차 수정〉 **비매동맹(非買同盟)** =불매동맹(不買同盟)
ㄷ. **타고을(他-)** 제 고향이 아닌 다른 고을. 〈1차 수정〉 제가 살지 아니하는 다른 고을. (타군=他郡). (준말: 타골).
ㄹ. **불성인사(不省人事)** 정신이 혼미(昏迷)하여 인사(人事)를 차리지 못함. 〈1차 수정〉 의식(意識)을 잃어서 인사(人事)를 차리지 못함. (인사불성=人事不省)
ㅁ. **직첩(職牒)** 벼슬아치의 임명(任命) 사령서(辭令書). 〈1차 수정〉 벼슬아치의 임명(任命) 사령서(辭令書). (딴이름: 고신=告身)
ㅂ. **불가래** (…) (불갈래). 〈1차 수정〉 (…) (불갈래). (옛말: 부담기).
ㅅ. **빈자떡** (…) (빈자병=貧者餠, 변한말: 빈대떡) 〈1차 수정〉 (…) (녹두전병=綠豆煎餠, 빈자병=貧者餠, 변한말: 빈대떡)
ㅇ. **붓끝** 붓의 뾰족한 끝. (필단=筆端). 〈1차 수정〉 ①붓의 뾰족한 끝. (필단=筆端) ②붓의 놀림새.(필단=筆端. 필봉=筆鋒)
ㅈ. **여북**(엇) (…) (여복) [- 아프냐?] 〈1차 수정〉 (…) (얼마나②. 언마나②. 여복) [- 아프냐?]
ㅊ. **불자동차** (…) (소방자동차=消防自動車) 〈1차 수정〉 (…) (소방자동차=消防自動車. 모터 파이어 엔진[42]=motor fire engine.)

42) 출판본에서는 삭제

ㅋ. **비누** (…) (①②비녹). 〈1차 수정〉 (…) (①②비녹. 사분=sabão).[43]

(Yㄱ,ㄴ)은 기존의 동의어를 삭제하고 새로운 동의어를 추가한 것이고, (Yㄷ-ㅁ)은 관련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가 추가한 것이고, (Yㅂ,ㅅ)은 기존의 관련어에 관련어를 추가 표시한 것이고, (Yㅇ,ㅈ)은 의미항목에 적절한 관련어를 추가한 것이고, (Yㅊ,ㅋ)은 외래어 관련어를 추가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수정 과정에서 관련어를 최대한 추가하여 사전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Vㄱ,ㄴ)과 (Yㅇ,ㅈ,ㅋ)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항목을 기준으로 관련어를 보이는 원칙에 따라 『원고본』을 보완한 것은 원고의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 분석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용례 정보

『큰 사전』에서는 표제어가 옛말인 경우 그 표제어가 출현한 문헌의 용례를 함께 제시하였지만, 표제어가 현재 쓰이는 말인 경우에는 모든 표제어에 용례를 제시하기보다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표제어에 한해 용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원고본』의 범례에 “뜻을 밝힌 위에 더욱 그 말의 실제 쓰이는 법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에는 [ ] 안에 적당한 실례(實例)를 들고”처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수정 전 원고보다 수정 과정에서 용례가 추가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수정 전 원고에서 제시한 용례를 수정 과정에서 줄인 경우도 있다. 이는 용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원고 작성을 시작할 때부터 분명했음을 뜻하는데, 『큰 사전』에서 용례를 제시하는 특징으로는 첫째, 문법적 기능을 하는 표제어의 경우에는 용례를 포함하여 용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 일반적으로 낯설다고 생각하는 표제어에 대해 제한적으로 용례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43) 출판본에서는 (①②비녹. 사봉. 사분=Savon).

(Z) 용례 제시 양상의 변화

ㄱ. **자국** [名] 무엇이 나 지나간 자리. 뒤에 남긴 흔적. (자곡. 자옥. 자욱. 자족. 자죽). (二)사물(事物)이 생겨 난 본처(本處). 〈1차 수정〉 어떠한 물건이 나 곳에 다른 물건이 닿아서 생긴 자리. [발-. 손톱-] (자곡. 자옥. 자욱. 자족. 자죽).

ㄴ. **비(非)** [接頭] 다른 말위에 붙어 부정(不定)의 뜻을 나타내는 말. 〈1차 수정〉 [머리] 다른 말 위에 붙어 부정(不定)의 뜻을 나타내는 말. [-국민=國民. -도덕=道德〈출판본〉 비-(非-)[머리] "아니"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국민=國民. -도덕적=道德的]

ㄷ. **지기** [不名] 얼마의 곡식 씨앗을 뿌릴만한 분량(分量)으로 땅의 면적(面積)을 표하는 말. [한마-. 닷되-]. 〈1차 수정〉 **-지기**[발] 얼마의 곡식 씨앗을 뿌릴만한 분량으로 땅의 면적을 표하는 말. [한 섬-. 한 마-. 닷 되-](-내기2)

ㄹ. **타인소시(他人所視)** [名]남이 보는 바이라 숨길 수 없음. 〈1차 수정〉 **타인소시(他人所視)**[이]남이 보는 바이라 숨길 수 없음. / **타인소시-에(他人所視-)** [엣] 남이 보는 바에. [- 어렵다].

ㅁ. **가뜩**[副] "가뜩이나"의 준말. [--- 죽을지경인데, 흉년까지 들었다.] 〈출판본〉 [엣] ①"가뜩이"의 준말. ②"가뜩이나"의 준말.

ㅂ. **잡아들다** [自] 당하여오다. 닥쳐오다. [가을철이 -]. 〈1차 수정〉 **잡아-들다** [제. ㄹ벗]①어느 시기나, 나이나, 정한 날짜가 가까이 닥쳐오다. [가을철이 -]. ②한계선을 넘거나, 갈림길로 목표를 정하고 들어가다.[지름길로 -]. (〈접어들다). [남. ㄹ벗] 정하여 들다. [집을 -].

(Zㄱ)의 경우 뜻풀이를 수정하면서 용례를 추가하였고, (Zㄴ)에서는 접두사로서의 용법을 보여주기 위해 용례를 추가하였고, (Zㄷ)에서는 의존명사를 접미사로 품사를 변경하면서 용례를 추가하였고, (Zㄹ)에서는 '타인소시에'란 표제어를 추가하면서 이에 대한 용례를 추가하였다. 이는 '타인소시'라는 명사의 뜻풀이를 통해서는 '타인소시에'란 새로운 표제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Zㅁ)은 『원고본』에서의 용례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준말'의 경우 '본말'에서 풀이와 용례를 보인다는 원칙에 따른 수정으로 볼 수 있다. (Zㅂ)은 의미항목을 구분하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의미항목의 용법을 보여주는 용례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원고본』의 조성과 수정 맥락을 정리하고, 『원고본』의 수정 과정을 추적하며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본』의 사전학적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원고 수정이 단순히 원고의 오류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전의 체제를 바꾸고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차원에서의 수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를 통해 확인한 바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본』의 ‘범례’는 1939년 검열 이전에 작성되었고, ‘본문’은 검열 직후부터 작성되어 1942년에 일차 조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원고본』의 조성 직전 인명과 지명을 포함한 전문용어 및 외래어를 원고에 많이 포함하였고, 이에 대한 어휘 평정과 뜻풀이는 『원고본』 수정 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수정 과정에서 『원고본』의 거시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표제어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어휘 사용의 변화 양상, 외래어와 한자어에 대한 판정 기준의 변화, 표제어의 체계화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제어의 배열이 어근에 따라 복합어를 배열하는 방식에서 자모순 배열로, 속담과 관용구를 단어 표제어와 같이 배열하는 방식에서 부표제어 배열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미시구조 중 표제어의 형태에서는 다분지 분석하는 방식에서 이분지 분석 방식으로의 변화, 규범성에 대한 판단의 변화, 대표 표제어의 변화 등을 확인하였다. 뜻풀이에서는 의미항목의 추가와 축소, 뜻풀이의 상호 조정과 체계화, 사용역 정보의 추가, 해방 후 정치·사회적 변화의 반영 등과 같은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풀이말의 한자 병기를 최소화하면서 뜻풀이에서 고유표현이 확대되는 문체적 변화가 있었음도 확인하였다. 이외에 문법, 발음, 관련어, 용례 등에서의 변화도 확인하였는데, 이 또한 미시정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였음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김민수, 『국어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1973.
_____, 「「큰 사전」과 건재—한글학회, 「큰 사전」 편찬사와 정인승 주간—」, 『어문연구』 2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6, 14-21면.
최경봉, 『근대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2016.
_____,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의 편찬 맥락에 대한 사전학적 고찰」, 『국어학』 81, 국어학회, 2017a, 3-38면.
_____, 「국어사전과 어문민족주의」, 『한국사전학』 30, 한국사전학회, 2017b, 37-66면.
_____, 『우리말의 탄생』(2판), 책과함께, 2019.
한글학회,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2009.

【Abstract】

The process which the manuscript of Joseonmal Keun Sajeon becomes a dictionary and the lexicographic significance of this Manuscript

Choi, Kyeong-B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anuscript of Joseonmal Keun Sajeon, the first Korean unabridged dictionary, and to clarify the lexicographic significance of this manuscript. Accordingly, the following discussions were made in this paper. First, the context of the composition and revision of this manuscript was examined. Second, by tracking the revision process of this manuscript, the changes in the macro-structure and micro-structure were summarized. Third, based on these discussions, it was examined what kind of search was made in the dictionary compilation methodology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dictionary. Through these discuss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vision of this manuscript is not simply at the level of correcting errors, but at the level of changing the dictionary structure and raising the technical level to the next level.

Keywords: history of Korean dictionary compilation, norms of language, Joseoneo Hakhoe (The Korean Language Society), Joseonmal Keun Sajeon (the first Korean unabridged dictionary), Hangeul Hakhoe (The Korean Language Society).

접수일: 2021.03.31. ‖ 심사일: 2021.04.16. ‖ 게재확정일: 2021.05.11.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Wonkwang Univ.